

戰後 日本미술사 한 획 그은 조양규 화백

해방 후 사상문제로 일본행...1960년 북에 간 뒤 행방 묘연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서 '탄생 90주년 기념전'
'31번 창고' 등 전체 작품 10여 점 감상...10일 세미나



1928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화가 조양규는 해방 후인 1948년 사상 문제 때문에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다니다 생계 문제로 3년만에 중퇴한 그는 1952년 화단에 정식 데뷔했고 시대상이 반영된 주제와 강렬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1960년까지 일본 미술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일본 평론가들은 그에게 '전후 일본 미술의 공백을 메운 중요한 작가'라는 평을 내렸다



'동경역'

하지만 한가 조양규의 흔적은 1960년 이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해 진행된 재일조선인 북한 귀국사업을 통해 그는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떠났고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비운의 작가'가 됐다. 그가 남긴 그림은 10여점에 불과하지만 그의 작품은 일본 리얼리즘 미술과 전위미술을 소개하는 전사에서 중요한 작가로 다루어져 왔다.

조양규의 작품세계는 자신이 거주했던 일본 조선인부락의 풍경과 사회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독일의 케테 콜비츠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인물상들, 현실과 인간사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동물들, 분단의 조국 현실과 조국에 대한 향수를 담은 리얼리즘 계열 등 폭넓다.



'31번 창고'

특히 화려한 색채의 창고 벽면과 대조적으로 그로테스크한 인간의 형상을 배치해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모순과 인간소외를 보여주는 '창고' 시리즈, 주변 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광경인 맨홀을 자본주의 사회의 암흑면의 또 다른 상징으로 선택한 '맨홀' 시리즈 등이 눈에 띈다.

오는 10일(오후 2시)에는 1989년 조양규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윤범모 교수(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해 김영순(미술사가), 이미나(도쿄예술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열린 예정이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택 詩 '그 강에 가고 싶다' 발레·미디어 아트로 그려내다

광주 그린발레단 10일 광산문화회관에서 무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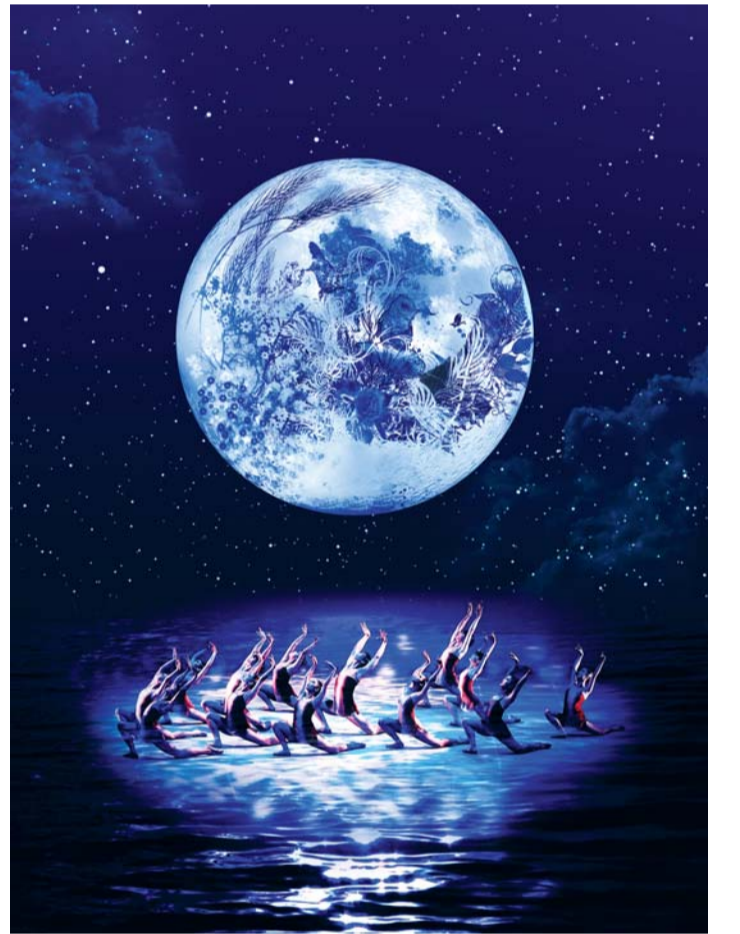
발레와 미디어아트로 김용택의 시를 새롭게 풀어낸다. 광주 그린발레단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송정동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 발레 '그 강에 가고 싶다'를 초연한다. 이 작품은 김용택의 대표 시 '그 강에 가고 싶다'에서 영감을 받아 흐르는 강과 같이 살고 싶은 인간의 소망을 발레와 미디어아트로 표현했다. 김용택은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작품은 광주와 장성, 나주를 잇는 황룡강을 소재로 만들어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문화재단, 광산구 등이 후원한 이 작품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년 동안 기획·제작됐다.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린발레단은 이번 작품에서도 미디어아트 스텝 진시영 작가와 호흡을 맞췄다. 발레가 지닌 공간의 한계성을 넘어서고자 문진 이들의 협업은 지난 2012년 '빛의 정원'을 시작으로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진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은 무대의 바닥과 안벽에 투사되며 55분 동안 진행되는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생명이 잉태되는 강의 풍요로움은 '황룡'으로 표현했고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아낸 보름달로 대미를 장식한다. 진 작가는 "강과 대지 등 자연을 미디어파사드에 버금가는 규모의 미디어아트로 표현했다"며 "강물과 가뭄,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무용수들의 유기적 움직임의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프롤로그와 7개의 장, 에필로그로 맺어지는 이 작품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피폐해진 자연을 황룡과 강의 여신이 신비로운 기운과 빛으로 되살리고, 생명을 되찾는 강물이 인간과 함께 다시 힘차게 흘러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막스 리히터가 편곡한 비발디 '사계'와 작곡가 허동영이 클래식을 전자음악과 접목한 창작곡 2곡이 무대에 오른다. 조가영 그린발레단 부감독이 연출을 맡고 조성미 광주시립발레단 차석단원과 러시아 출신 발레테 노르보예프 등 26명이 출연한다.

안무를 맡은 박경숙 그린발레단장(광주여대 교수)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이 바쁜 일정에도 3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있다"며 "이번 작품이 무용계의 다양성을 살리는 작품으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문의 062-960-898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발레단 창작발레 '그 강에 가고 싶다' 연습 모습.

소박하고 다채로운 문인화 여백 속으로

광주·전남 문인화 협회전 8~14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여백을 살린 정제미가 돋보이는 문인화의 다양한 면모를 만날 수 있는 대규모 그룹전이 열린다. 광주·전남 문인화 협회전이 8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미술 애호가들을 만난다. 1992년부터 지역 문인화가들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금봉 박행보 선생을 선출, 모임을 준비해온 작가들은 1993년 회원 98명이

참여한 광주·전남문인화협회(이사장 조창현) 창립전을 통해 출발을 알렸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이번 회원전에는 작품 '공생'을 출품한 금봉 선생을 비롯해 장찬홍·김영삼·한상운·구지희 등 역대 이사장을 포함 김남기·김은중·김종화·배성환·백준선·이영임·이용선·정규화·정해은·탁영희 등 모두 103명의 회원이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시서화가 어우러진 전통 문인

화 뿐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그림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먹의 농담을 살려 풀어낸 매화, 국화, 소나무는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며 그림과 함께 쓰인 글귀들은 또 다른 볼거리를 전한다. 하늘에 걸린 달, 평화로운 어느 가족의 일상, 매화 향기 아래 차 한잔의 풍취, 가을날의 정취가 느껴지는 역새발 등 소박하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화면 가득하다. 오프 행사는 8일 오후 6시 열린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창현 시화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책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IPALG 초등학교 맞춤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